

# 듀이(John Dewey)의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연구

김 성 수\*

## I. 서론

듀이 철학의 출발은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공허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속에서 이루어짐으로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적인 사회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표준을 듀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구성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분배하는 사회이다. 듀이에게 있어서 선하다거나 옳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갱(Gang)집단이나 도둑집단은 구성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듀이는 다음 조건을 보충한다. 즉, 민주주의적인 사회는 폐쇄된 사회(closed society)가 아니고 개방사회(open society)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을 저술하였다.<sup>1)</sup> 이 책에서 듀이는 민주사회 또는 민주주의적인 제 원리가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갖는 함의점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이전의 여러 사회적인 제 상황하에서 발달했으면서도 현재까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교육의 이론과 실제들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 이상의 충실한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듀이는 또한 이 책에서 과학이나 기술공예의 발달진보가 민주주의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달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교재와 교육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 부교수, 교육철학, 기독교교육전공

1) 철학자들은 듀이의 저서 가운데서 특별히 확실성의 탐구(The Quest For The Certainty), 철학의 개조(Reconstruction In Philosophy), 경험과 자연(Experience And Nature)을 듀이의 주저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자는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을 들고 있다.

## II. 생활의 필수요건으로서의 교육

### 1. 전수에 의한 생의 갱신

듀이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전달(transmission)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존속된다고 말함으로서 그의 사상개진을 시작하고 있다. 곧 그의 말을 빌린다면 “영양의 섭취나 재생 또는 갱신이 우리의 생리적인 의미의 생명에 갖는 관계와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생명(social life)에 관계된다.”<sup>2)</sup> 즉 영양과 생리적 생명과의 관계는 교육과 사회생활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생활유기체가 환경에 재적응(readaptation)하고 자신을 갱신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명을 연속시켜 나가는 것과 같이 사회집단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경험’의 전달을 통하여 그 생명을 연속시켜 나간다. 이와 같은 경험의 전달 또는 집단생활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즉, 그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 교육이 없으면 미성숙한 세대는 그들 성인세대들의 이상이나 목적, 관심사, 기준, 소견, 습관, 지식, 기술 및 기타 관습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세대가 완전히 죽어 버린다면 그 사회는 그것이 비록 원시사회이건 문명사회이건 간에 그 특징적인 생활이 끝나 버리게 되는 것이다.

### 2. 교육과 교통

교육 또는 경험의 전달은 교통(communication)을 통하여 일어난다. 실제로 우리는, 사회는 전달(transmission)과 교통(communication)에 의하여 영속 될 뿐만 아니라 전달과 교통안에 존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sup>3)</sup> 듀이는 이러한 사실을 공통(common), 공동사회(communitiy), 교통(communication)과 같은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보여줌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서로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회(communitiy)를 형성하고 사는 것이며, 교통(communication)은 사람들이 사물을 공통으로 가지게 되는 수단인 것이다.<sup>4)</sup> 다시 말하면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를 소유하는 사회생활은 교통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모든 교통은 교육적 기능을 갖는다. 왜냐하면 하나의 교통을 남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확대되고 변화된 경험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교통을 하는 사람(communicator) 역시 교육적 효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교통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을 조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의 경험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야하기 때문인 것이다.<sup>5)</sup>

2)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 The press, 1968, p.9.

3) *Ibid.*, p.4.

4) *Ibid.*

5) 교육자의 경험 역시 아동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이라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생활은 자신을 영속시키기 위하여 교수와 학습(teaching and learning)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과정 그 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발휘한다. 이로 말미암아 경험이 확대되고 계몽되며, 상상력이 자극되고 풍부해지며, 말과 사고의 정확성과 명석함이 고양되어지는 것이다.

### 3. 형식교육, 정식교육(formal education)의 지위

듀이에 의하면 형식적인 교육에 앞서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생활 자체의 교육적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육을 지나치게 사변화하거나 형식화한 것으로 보는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한다. 즉 학교라는 것도 전달의 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학교교육의 방법을 그 정당한 위치에 둘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미개한 사회집단에서는 격식을 갖춘 교육이나 훈련(formal teaching and training)을 거의 볼 수 없다. 이들 사회집단의 젊은 이들은 주로 모방을 통해서 또는 성인들의 직업에 바로 가담함으로써 배웠던 것이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아동의 능력과 성인의 관심사와의 간격이 넓어지게 마련이다. 성인이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공간적으로나, 그 내포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동의 생활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그 참여를 위해서는 준비훈련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의도적인 기관, 즉 학교와 그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가 곧 교사 그리고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특수한 교재 즉 학과가 개발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 교육(formal education)이며 여기에 또한 어떤 현저한 의힘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으로 놀이를 통하여서나를 막론하고 성인의 실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동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개인적이고도 생생한 경험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또는 의도적인 교육은 너무 빈번히 이 생기(vitality)와 의미(meaningfulness)를 등한시하며, 따라서 추상적이고 아동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 배워야 할 것의 대부분이 기호로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피상적이고 인위적이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요구와 인간적인 제 가치를 다루는 일들이 언어상 기호를 통한 학문이나 애매모호한 사실에 관한 지식과 비교해 볼 때 그 가치가 격하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물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곳으로 생각케 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철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형식적 교육과 비형식적 교육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찾아내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다.<sup>6)</sup>

6) *Ibid.*, p.9.

### III. 사회기능으로서의 교육

#### 1. 환경의 본질과 의의

다음으로 듀이는 사회가 그 미숙한 성원을 그 자신의 사회적인 유형(표준형)으로 육성하게끔 교육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찰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이끄는 혹은 육성하는 과정(a process of leading or bringing up)이다. 그것은 육성(fostering), 보육(nurturing), 교화(cultivating)의 과정이며 그 결과는 모양을 갖추고(to shape), 형성하고(form), 도야(mould)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만일 직접적인 감염이나 문자적인 주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성인들이 어떻게 아동들을 성인의 견해에 동화시키고 동류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환경(environment)의 작용을 활용하여 아동에게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환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surroundings)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자신의 활동경향과 주위(surroundings)와의 특수한 연속성을 의미한 것이다.<sup>7)</sup> 요컨대 환경은 생물의 특유한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제상황(conditions)으로 성립된다. 그것은 시공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극은 북극 탐험가에게 있어서는 그 정복여하에 불구하고 그의 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사람의 활동을 독특하게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교육력으로서의 사회환경

그러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physical surroundings)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인 관계(social relationships)를 포함한다. 여기에 사회적 환경이 성립한다.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지어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 없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생산업자가 자기 사무실에서 비밀히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일지라도 그는 원자재를 사고 제품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회적 환경이 어떤 모양으로 외적행동습관에 관하는 한에 있어서 그 미숙한 사회성원들을 양육하는가 하는 것은 명백하다. 어린 아동은 어떻게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을 통제하며 불이나 날카로운 물건과 같은 위험스런 물건들을 회피하는 것을 아주 쉽게 배운다. 아동의 행동은 유용한 습성을 개발하도록 이용되는 것이다. 아동은 타인에게 환심을

7) Ibid., p.11.

사는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쾌락을 취하고 고통을 피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제1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점까지는 단지 인간으로서 교육 받는다고 보다는 오히려 동물처럼 훈련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완성단계는 아동 각자를 그 집단활동의 동사자(a sharer or partner)가 되게 하여 집단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집단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이 집단의 감정적 태도를 취득(accept)하는 순간, 또한 아동의 신념과 사상이 집단의 그것과 유사한 형식(모양)을 취하게 되면, 그 아동은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에 의해서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듀이는 계속해서 이 사회적인 환경이 두가지 방법으로 교육적 또는 형성적(formative)인 영향을 행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의 한가지 방법은 무의식적(unconscious) 또는 어떤 정해진 목적과는 독립하여 행사되는 방법이다. 그것은 간접적이고 미묘하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침투하여 인격과 심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언어사용의 기본적인 양식, 어휘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습득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예절, 습관, 관습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습적 자극에 대한 우리의 상습적 반응(또는 행동)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모범을 보이는 것은 교훈보다 훨씬 강력한 범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상한 취미와 미적 감상도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로 부터 발달되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언어나 습관, 관습, 취미같은 것도 모두 의식적인 교수(conscious teaching)에 의해서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결코 자발적인 것이 되거나 개인적으로 몸에 뿌리 깊이 심어진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변화라는 것은 곧 만약 계속적인 강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자취를 감추어 버리는, 힘들여 상기시키는 잔재로 남아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가치의 평가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밑에 잠복해 있는 습관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항상적인 접촉에서 형성되어진 제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탐구나 사색의 과정을 거치지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의식적 사고를 결정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특수환경으로서의 학교

사회적 환경이 교육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두번째의 방법은 직접적이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성인들은 미성숙자가 그 속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환경을 구안하고 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교육의 종류를 통제한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해서 생겨난 전형적인 특수환경을 우리는 학교라고 부른다.

학교는 사회적 전통이 복잡화하여, 사회적 유산의 적지 않은 부분이 문자로 기록되고, 그 기록된 기호를 통하여 전달되게 되었을 때 생긴 것이다. 기록된 기호는 다른 사람들과의

우연한 접촉에서 배울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과는 비교적 생소한 사물을 선택하여 기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형식적인 일상대화로부터 삼각법에 관한 내용을 얼마만큼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라는 기관은 이와같은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안된 사회적 상호관계의 한 특수한 양태인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학교는 일반적인 사회환경과는 구별되는 세가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8)</sup> 즉 학교는 복잡한 문화를 적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함으로써 단순화된 환경을 제공해 주며, 불필요한 것을 빼버리고 간단하게 환경을 조직하고, 나아가 환경을 조화롭게 구성해 준다. 다시 말해서, 문명은 그 전체를 일시에 동화시키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부분으로 나누어 계단을 밟아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해시켜야 한다. 이점에서 학교는 첫째로, 아동들이 계속적인 단계를 통해서 해득할 수 있는 단순화된 환경(simplified environment)을 제공해 준다. 둘째로, 학교는 사회환경 가운데서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부분을 제거하여 보다 나은 미래 사회에 기여할 부분만을 보존하고 전달한다. 셋째로, 학교는 환경을 조화있게 제공해 준다. 학교는 사회환경속의 여러가지 요소들의 균형을 보전하여 각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태어난 사회집단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넓은 환경과 더불어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상이한 인종, 상이한 종교, 상이한 종족을 가진 아동들이 같은 학교에서 서로 섞여 접촉하는 가운데서 아동 전체에게 새롭고 보다 중요한 환경이 창조되는 것이다.<sup>9)</sup>

#### IV. 지도자로서의 교육

##### 1. 환경의 지도력

교육이 갖고 있는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아동 개인에게 지도(direction)를 주는 것이다. 듀이는 이 지도(direction)와 통제(control)를 주의깊게 구분하고 있다. 통제(control)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연적 충동(natural impulses)을 공공 또는 공통의 목적에다 종속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지도(direction)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강제요소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행동을 그목표로 지향케하는 작용(a guiding of activity to its own end) 또는 어떤 기관 또는 유기체가 이미 하고자하는 바를 충실하도록 하게 하는 거듭음(조력)이다.<sup>10)</sup>

듀이는 이러한 점을 생리학과 심리학에서 예시해 주고 있다. 그는 자극이 어떻게 단지 행동(또는 반응)을 격동시키거나 흔들어 놓는 이상의 일을 하는 가를 보여준다. 즉 자극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행동(또는 반응)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반대편에서 말한다면

8) *Ibid.*, p.20.

9) John Dewey, *School and socie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p.28.

10)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p.24.

반응(response)은 단지 반작용(reaction)이나 교란(being disturbed)에 대한 반항(protest)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극에 대한 응답(an answer to the stimulus)이 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선은 눈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도록하는 자극이요, 눈의 기능은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자극과 반응 상호간의 적응(an adaptation of stimulus and response to each other)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눈이 열려있고 동시에 광선이 있으면 시각(seeing)이 일어난다. 이 경우에 자극은 단지 눈의 임무를 다하게 하는 조건이다. 즉 자극은 어떤 기관의 적절한 기능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지 결코 외부적 방해가 아니다.

듀이는 이제 적절한 종류의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이 고려해야 할 두가지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극에 대해서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나가도록 '촛점을 맞추는 일'(focusing)과 '질서를 세우는 일'(ordering)이다.

지도(direction)라는 것은 에너지를 표적에 집중시키는 반응을 자극해야 한다. 자전거 타기 학습의 최초경험을 생각해 보면, 팔, 다리, 신체, 자전거가 모든 지도작용으로 분산된다. 그러나 일단 불필요하고 혼란스러운 동작(운동)을 제거할 수 있으면 행동을 조정하고 그것을 적절한 반응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지도는 또한 행동의 순서(sequence)와 계속성에 적합한 반응을 포함해야 한다. 권투를 하는 사람이 공격해 들어오는 하나의 펀치를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피하는 방법이 도리어 더 큰 강타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펀치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균형을 취하는 법을 배울 수 없으면 그는 링에서 버티어 내지 못할 것이다. 요컨대 만족할만한 통제라고 하는 것은 각개 행동이 당장 닥쳐오는 자극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까지도 유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촛점을 만드는 일'(focusing)과 '질서를 세우는 일'(ordering)은 교육의 진정한 두 국면이다. 촛점을 만드는 일은 표적을 맞추는 일이고, 질서를 세우는 일은 장차 올 행동에 필요한 균형을 확보하는 일이다.<sup>11)</sup>

이러한 고찰에서부터 교육자들에게 주는 두가지 중요한 교훈(결론)이 도출된다. 첫째는, 순전한 외적인 지도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환경은 반응을 불러내는 자극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각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향성(천부적 경향)에 기초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 있어, 아무런 것도 아동을 강요하지 못하고, 억지로 그를 어떤 행동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이 사실을 등한시 하는 것은 인간본성을 왜곡하고 그르치는 것이다. 한편, 현명하고 효과적인 지도는 피지도자의 현존하는 본능과 습관을 고려할 때 일어난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지도는 실제로 재 지도이다.(all direction is really redirection) 그것은 이미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을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돌리는 것이다.

둘째는, 인위적인 통제나 성인사회의 관습, 규율을 부과하여 아동을 제어하는 것은 일

11) *Ibid.*, p.25.

반적으로 근시안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혹은 당장의 효과를 거둔다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후속하는 행동에 균형을 잃게 한다는 대가를 지불하기 마련이다. 벌을 가한다는 위협은 아동으로 하여금 그가 자연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에 그로 하여금 일층 더 나쁜 일을 하게 하는 입장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교육자가 그들이 지도하는 아동의 계속적인 발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 2. 사회적 지도방법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든지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는 물리적 결과(physical results)와 도덕적 결과(moral results)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sup>12)</sup> 불을 위협스럽게 가까이하는 아동을 강제로라도 잡아당겨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효과(educative effect)가 따른다고는 할 수 없다. 강도를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여 반드시 그의 도덕을 고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물리적 결과와 도덕적, 교육적 결과를 혼동할 때 우리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당사 자신의 참여성향을 활용하는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통제(의식적인 제어행동)는 사람의 행동이 본능적, 충동적이어서 행동을 하는 자신이 그 행동의 결과 역할을 예견하는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적 통제의 보다 더 효과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은 미성숙자에게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나온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작업에 있어서 상호분담 또는 참여가 있을 때, 그리고 모방과 경쟁, 공동작업의 기회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우리는 아동의 성향(disposition)을 형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갖게 되는 것이다.

## 3. 물건의 사용

이 점에서 듀이는 그가 '물건을 사용'(use of things)이라고 일컫는 것이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한다. 듀이는 일련의 감각적인 인상(a series of sensory impressions)을 통하여 사물의 성질을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각인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잘못된 심리학이라고 비판한다. 각 물체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여러특징을 통합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물체가 쓰이는 방도로 부터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자라는 물체는 야만인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문명세계의 아동은 이미 그 의자의 용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 의자의 의미 또는 용도를 알게 된다.

12) Ibid., p.26.

물리적 자극에 대한 단순한 적응과 지적(정신적)행동(mental act)을 구별지워주는 것은 후자가 '의의', '의미'를 가진 사물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이다. 만약 내가 길을 걷다가 돌에 부딪칠 때 그냥 한쪽으로만 차버린다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반응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여기에 밟혀 넘어질까봐서 걱정이 되어 한쪽으로 차서 치운다면 나의 행동은 지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지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즉 나는 단순한 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바를 의미 또는 의도한다. 우리가 비지성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행동할 때 거기에는 지도(direction)가 없는 것이다. 빈발하는 자극에 대해 반복되는 반응으로 어떤 행동습관을 훈련시킬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습관들을 갖고 있다. 결과로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소유하거나 통제한다. 이것은 훈련(training)이지 교육(education)이 아니다.

우리는 사물의 의미 또는 용도(물건의 사용)를 우리의 사회집단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에서부터 배운다. 그리하여 사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진바와 같은 관념을 가진으로서 한 사회집단의 참된 성원이 되어진다. 그것은 곧 사물이나 행동에 대하여 남이 가진바와 같은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통된 이해와 목적을 개발하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마침 당기고 있는 밧줄을 내가 잡아 당긴다고 그것이 반드시 참여된 활동 또는 공동 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잡아 당기고 있다는 것과 또 무슨 목적으로 당긴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참여된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일관작업(assembly line)을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거나 관심없이 자기의 일만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비록 여러 행동의 병렬이 있고, 또한 그 개개 행동이 결과적으로 단일한 결과를(생산제품의 생산) 생산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섭이나 연결은 없다. 그러나 만약, 각자가 자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있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기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공동심(commonmind)이 있고, 행동의 공동의사가 있다. 이 경우에 각각의 작업자간에 공통된 이해가 성립되고 이것이 각자의 행동을 통제한다.

듀이는 여기서 교육적 과정에서 '물건의 사용'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자 한다. 그는 말하기를, 사회적 제어(social control)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공에 의한 생산품이라든지, 자연의 원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집단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하므로써 아동들이 획득하는 지적인 반응의 조직화된 습관들을 통하여 아동들은 지식(knowledge), 이해(understanding), 및 판단의 성향(disposition of judgement)을 개발한다. 곧 요컨대 이들은 '마음'(mind)을 소유하는 것이다. 듀이는 설명하기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물건이 참여된 상태(shared situations)속에서 사용되는 동안에 이를 이해하는 능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은 사회적 제어의 방법인 것이다.”<sup>13)</sup>

#### 4. 모방의 심리학

다음으로 듀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개인과 물건과의 직접관계에 종(從)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학습심리학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의 행동을 모방하는 인간의 본능적 경향을 강조한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아동은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모형(patterns)을 본 받으려하고 거기에 일치시키려고 함으로서 학습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말앞에 짐수레를 세우려는 것과 같음을 듀이는 보여준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되는 관심을 가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물건을 사용하는데 참여한다는 사실을 잘못 표현한 용어라는 것이다. 유사한 조건 밑에서 동일한 사회집단의 사람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남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그들이 동일한 통제관념이나 의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가? 요컨대 우리가 모방이라고 일컫는 것의 대부분은 실제로 사람들이 동일한 자극에 대하여 동일한 일반적 방법으로 같은 심정(心情)의 반응을 하는 사실을 일컫고 있는 것이다. 의식적 교훈과 과거에 경험한 사회적 인정 여부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일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 공인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과는 이연(離緣)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sup>14)</sup>

#### 5. 상술한 원리의 교육에의 적용

무슨 까닭으로 야만집단은 야만상태를 계속하고, 문명집단은 문명을 보존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만인들은 지능이나 선천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야만인의 지능은 그들의 이전문화상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도리어 결과라는 것이다. 그들의 제도나 사회적인 제 활동이 그들의 주의대상과 흥미를 제한시키며, 그럼으로서 결과로 지적발달을 촉진시키는 자극을 또한 제한한다.<sup>15)</sup>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대해가는 많은 자연력과 대상들이 통제되어지고 또한 인간활동의 수단이 되게 되어진다. 이리하여 문명인들은 그들의 능력을 자극해 주는 보다 우수한 많은 자극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농업이나 수공업, 과학 및 예술 등의 모든 발전은 자연상태를 인간활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변화시켰다. 오늘, 어린이의 이와같은 정선되고 자극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13) *Ibid.*, p.33.

14) *Ibid.*, p.34.

15) *Ibid.*, p.36.

때문에 그들은 일찍 인류가 장구한 세월을 두고 고토하여 얻은 본질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사물들이 그 자체로서는 문명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들의 사용이 곧 문명이다. 만약 그것들이 “진정으로 참여한 생활 또는 공동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경우 이 기구들은 문명의 진정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이스는 그 나라가 가진바 제한된 물리적 제자원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치있고 고상한 문화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교육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도적 교육은 소기(所期)한 방향으로의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선택된 특수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 특수한 환경에서는 언어가 한 주요한 도구 또는 연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언어를 사용하여 아동은 과거의 인간경험을 대신 공유하며 상징적으로, 또는 상상적으로 장래의 정세를 예상할 수 있다. 형식교육에, 언어가 이처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맹(unlettered)”과 “무교육(uneducated)”이라는 두 말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여기에 또한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비록 우리 모두는 “이야기함”(telling)으로서 가르칠 수 없고, 아동의 머리속에 지식을 쏟아 부어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와같은 실재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고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단지 말로서만 이 원리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기인되고 있지 않는가? 고 듀이는 반문한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언어의 사용(verbalization)을 줄이고자 한다면, 학교환경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행동에 요구되는 매개물(agency)과 도구들(tools)로 설비되어야 한다. 교수방법이 개선되어져서 아동이 사물과 직접, 또한 계속적인 접촉(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언어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언어의 사용은 반드시 아동의 참여활동(shared activities)과 관련을 맺어 일층 더 활기가 있어야 한다. 곧 실생활과 관련이 된, 허공에 뜬 것이 아니고, 빈말이 아닌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이다. 언어는 잘못하면 추상적이 되는데 언어가 대표하는 사물로서 가득차게 하라는 것이다. 학교는 일반적인 사회환경에서 유효한 교육적인 제 조건을 몰각하지 않는 것을 배워 알아야 한다. 학교는 서적중심, 거짓 주지적(主知的)인 정신을 사회적인 정신(social spirit)에 대치시켜 버리는 일을 피해야 한다. 효과적인 학습(effective learning)은 일반적으로 학습이 별개의 고립된 일로 되어질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아동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이용하고, 자기 주위의 사물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공동의 활동에의 참여에 의해서만 비로소 최선의 사회적 지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 V. 성장으로서의 교육

다음으로 듀이는 성장의 과정으로서의 교육에 고찰한다. 그는 성장을 후일의 성과를 위하여 행동이 누적되어 가는 움직임(cumulative movement of action toward a later result)

이라고 정의한다.<sup>16)</sup> 성장의 본질적 조건은 미성숙이다. 즉, 인간은 단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떤 영역에서만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미성숙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단순한 결핍의 상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미성숙은 후일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현재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적극적인 힘 곧,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성숙을 단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동시에 성장을 미성숙과 성숙간의 간격을 메꾸어 주는 무엇으로 생각한다.<sup>17)</sup> 그래서 아동기를 그 자체 본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인을 고정된 척도로 삼아 미성숙을 측정하기 때문에 아동의 본질적 가치를 무시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아동이 가지지 못할 어떤 것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아동의 생애적 특질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성숙의 두가지 주요한 특징인 의존성(dependence)과 가소성(plasticity)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sup>18)</sup>

### 1. 의존성 (dependence)

만일 의존성이 무능(impotence)이나 무력(helplessness)과 동의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발달도 일어날 수 없다. 의존성이 능력에 있어서의 성장(growth in ability)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존성의 적극적이면 건설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는 무력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한 시간도 살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짐승의 새끼는 출생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짐승이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짐승들의 생활은 그 둘레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않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까닭으로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하기 위해서 육체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사회적 능력때문에 짐승들에 비해 육체적인 능력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능히 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존성은 유약성이 아니라 힘을 의미한다. 그것은 상호의존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만약 한 개인이 너무 독립적이게 되면 사회적 능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과도하게 자기 의존적이며 자기 충족적이 되는 것은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초연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 이러한 태도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남들과 독자적으로 서고 행동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치유할 수 있는 고통의 대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일종의 광증(insanity)이다”고 듀이는 말한다.

16) *Ibid.*, p.41.

17) *Ibid.*, p.42.

18) *Ibid.*,

### 2. 가소성 (plasticity)

미성숙의 두번째 특징은 가소성으로서, 이것은 접합제나 밀봉의 가형성과는 전연 다르다. 그것은 행동을 개변하는 힘이다. 이것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이며 한 경험에서 배운 바를 후일 당면할 난관(경험)을 극복하는데 유용하도록 보존하는 힘이다.

요컨대, 인간이 자기 자신의 경향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환경의 감화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듀이가 말한 바 소위 성향(dispositions)을 발전시키는 힘이다.

성향은 습관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고등동물의 어린것은 그들의 본능적 반응행동을 활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대부분의 생활양식에 대하여 이 본능들은 재빨리 완성된다. 예를들면, 병아리는 부화한지 몇 시간만에 모이를 정확하게 쪼아 먹는다. 그러나, 갓난 아기는 그가 본 물체를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실지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기까지, 즉 자신의 활동을 조정하게 되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비록 어떤 통제를 확립하는데는 많이 시간이 걸리지만 유아는 보다 융통성이 있고 다양한 행동유형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갓난 애에 있어서는 비록 일시적으로는 불리한 듯 하지마는 그는 상이한 상황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며 행동을 여러 모양으로 배합하기를 배운다. 그래서 계속적인 진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행동을 학습함에 있어서 다른 상황에도 이용될 수 있는 행동유형이 발전된다. 나아가, 인간은 학습의 습관을 획득한다. 즉, 그는 배우기를 학습하는 것이다.

듀이는 계속해서 유년기가 길다고 하는 사실은 아동의 발달에 기본적인 뿐 아니라 성인에게 있어서도 역시 의미심장한 것임을 보여준다. 의존성과 학습은 양육과 애정(affection)을 자극하는데 기여한다. 그것은 애정과 동정으로 아동을 돌보게 하는 습관을 형성케 하여, 집단생활에 절대 필요한 이른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건설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도덕적 발달은 선견(foresight)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극한다.<sup>19)</sup>

다시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상호간의 영향과 감화의 한 예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복잡성은 일층 더 긴 유아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의존성의 연장은 가소성의 연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자는 모두 사회적 추진력을 증대시킨다.

### 3. 습관의 본질

앞에서 습관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이 습관을 검토하고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습관은 일종의 기술(skill), 즉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는 수단으로서 자연적 조건을 사용하는 능력이다.<sup>20)</sup> 그것은 행동기관의 통제를 통한 환경의 능동적 통제를 포함한다.

19) *Ibid.*, p.45.

20) *Ibid.*, p.46.

이것은 단순히 신체를 통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는 근육과 신체를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이리하여, 습관의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적응을 조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일치시킴(conformity)이던 길들임(habituation)과 같은 피동적인 종류의 적응(adjustment)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환경에 적응시킴에 못지 않게 우리의 행동에 환경을 적응시키는 종류의 적응(adaptation)이다. 예를 들어, 야만인은 사막에서 이력저력 살아간다. 그러나 이 적응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수락, 용납하며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적응이다. 이것은 피동적이며 거기에는 최소한도의 적극적 지배나, 환경을 굴복시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활용이 있을 따름이다. 문명인이 사막에 들어왔을 때도 그 역시 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킨다. 그는 다른 곳에서부터 새로운 동식물을 구하고 토지를 개량하며 관개시설을 도입한다. 야만인은 단지 환경에 익숙해질 뿐(habituated)이지만 문명인은 환경을 개변(transform)하는 습관을 가진다.

습관은 행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그 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며 지적인 성향(dispositions)을 형성한다. 습관은 소위 듀이가 표현한 바대로 일종의 경향성(inclination)으로서, 습관을 실천하는데 부여된 조건들 가운데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좋아하고 선택하는 경향인 것이다.<sup>21)</sup> 사람을 혹은 건축사로, 혹은 의사로 만드는 습관은 그 개인의 욕망, 사고 및 관찰의 방식, 그리고 기술에 근거한다. 습관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위험은 경향성이나 지성과 유리된 기계적인 행동방식으로서만 습관을 생각하는 것이다. 상습화된 습관(routine habits) 즉,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는 습관은 가소성을 파괴하는 습관이다. 학교가 외적습관과 운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계적인 상습행동과 숙련에 의존할 때에는 참된 성장의 기회가 파괴되어지고 만다.

#### 4. 교육적 의의

생활은 성장이며, 성장은 곧 생활이다. 이 말을 교육에 적용할 때 두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는, 교육은 그 자체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둘째로 교육은 지속적인 재조직, 재구성, 재형성의 과정이라는 것이다.<sup>22)</sup>

(1) 성장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그 자체를 목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 때, 몇가지 심각한 오류가 생겨난다. 아동의 자연적 본능, 또는 천부적 능력이 무시되거나 성가신 것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개인의 지각(perception) 대신에 기계적인 기술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훈련(drill)이나 기타 같은 종류의 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다. 뿐만

21) *Ibid.*, p.48.

22) *Ibid.*, p.50.

아니라, 여기에는 독특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외양적 합치(conformity)가 목적이며 따라서 아동의 개성은 유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과로 불확실한 것과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변화를 회피하게 된다.

(2) 성장은 더 많은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교육은 더 많은 교육으로 인도한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아동이 학교를 떠난 후에도 교육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조직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생활 자체로부터 배우며,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생활조건을 적당히 조절하려는 경향이야 말로 학교교육의 최고의 산물인 것이다."

아동의 미성숙을 성인의 성취를 측도로 하여 고정된 비교로서 정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육은 더 이상 누가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적 또는 도덕적 구멍속에 지식을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되지 아닐 것이다. 생활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간존재는 그 생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내재적 충실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교육은 연령에 불구하고 모든 단계에서 성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 VI. 재구성으로서의 교육

성장의 과정을 분석하고 나서 듀이는 이제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검토한다. 그래서 몇가지 상이한 관점을 보여 주는데, 교육을 성인생활의 책임과 특권으로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보거나, 내부로부터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작용으로, 또는 능력훈련으로서, 아니면 과거의 문화에 대한 적응 또는 외부로부터 물질적 자연의 자극을 통해서 마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sup>23)</sup> 대신에 교육은 생활의 경험으로부터 그 경험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형태로 생활하는 것이다. 듀이의 용어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교육은 "경험의 의미를 증대시키고, 후속하는 경험의 진로를 지도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는 경험의 개조 내지는 재구성이다."<sup>24)</sup>

경험의 의미를 증대시키는 교육의 한 측면은 우리가 종사하는 활동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의 증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번쩍이는 불을 잡으려는 어린이는 손을 댄다. 이로 인하여 그는 어떤 촉각이 어떤 시각과 관련을 지을 때 열과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화염(flame)의 속성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여러가지 실험을 통하여 과학자는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사실 즉, 열과 기타 사실간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소, 산화, 광선 그리고 온도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이 화염의 의미를 구성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23) *Ibid.*, pp.54~76.

24) *Ibid.*, p.76.



교육의 또 다른 한 측면은 후속되는 지도력의 증진인데, 이것은 장차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일층 더 현명하게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고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목적적이거나 틀에 박힌 행동과 구별된다. 첫째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involvement)가 없다. 그냥 목적없는 닦치는 대로의 행동을 할 뿐이다. 아동은 외적 명령에 의하여 행동할 때는 자기 자신의 목적이 없거나 또한 자신의 행동이 다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거나 변덕스럽게, 심지어는 장난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너무도 빈번하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련의 규율을 따라 행동한다. 이러한 때 이들은 '올바른' 결과나 대답을 얻긴 하지만 그 결과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간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틀에 박힌 행동, 기계적 행동은 사물의 의의와 관계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의의와 시계(視界)를 넓히는 대신 제한시킨다.

따라서, 계속적인 재구성으로서의 교육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경험의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후기(後期)는 전기(前期)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뒤의 경험의 결과가 앞의 경험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또한 전체 경험은 이 의미를 포섭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경향 또는 성향을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재구성으로서의 교육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그것은 아동으로 하여금 성인의 사회에 재빨리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이다. 만약 교육이 진보를 향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미성숙자의 경험을 형성함에 있어서 현존하는 습관을 재생시키는데 노력하지 않고 보다 낫은 습관을 형성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만약 교육이 사회개선의 건설적 수단으로서의 그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하려고 한다면 교육이 단지 아동과 청소년을 발전시키는 수단 이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즉, 그들이 구성분자가 될 미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역할을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이다.<sup>25)</sup>

## VII. 교육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개념

어느 한 사회에 의하여 발전된 교육은 반드시 그 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생활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타당한 요소는 무엇인가? 듀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요소는, 사회통제의 요인으로서 보다 많고 보다 다양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며 둘째 요소는, 사회집단간의 보다 자유스러운 상호작용과 변화해 가는 제 단계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관습의 계속적인 재 적응이다.

25) *Ibid.*, p.79.

민주주의 사회가 교육에 것처럼 헌신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때문이다. 사람의 관심사가 상호간 침투되고, 재적응 또는 진보가 일어나는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서 민주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경주해야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교육을 중시하는 표면상의 설명은, 보통선거에 기초하고 있는 정부가, 선거를 행사하고 통치자에 복종하는 국민이 교육을 받지 못할 때, 이러한 정부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지 정부의 한 형태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생활(associated living)의 한 양태이며 참여적인 공동경험(shared communicated experience)의 한 양식이다.<sup>26)</sup>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해 감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또한 자신의 행동의 의의와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해 간다. 이것은 개인이 보다 많은 자극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다양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에 있어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최대한 추구하고 또한 동시에 보다 큰 공동의 이해관계에 헌신해야만 하는 오늘 우리들의 사회는 그 모든 구성원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신중하고도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사회의 계급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용이하게 지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유동성과 동적인 질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 개인의 독창성과 적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중은 그 중요성과 관련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각종 변화로 말미암아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직 소수만이 외부로부터 강요된 맹목적 행동이 가져온 이익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파괴일 것이다.

## VIII. 교육의 목적

듀이는 다음으로 교육의 목적에 대한 고찰을 한다. 그는 목적을 정의하기를 자연적 과정이 현재의 관찰과 행동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식적 인지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목적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상이한 방법으로 행동할 때, 거기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견하는 동시에, 그 예기되는 바 지식을 관찰과 실험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7)</sup>

목적은 외부로부터 행동과정에 부과되는 한에 있어서는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 고정부동의 목적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유리되며, 지성을 자극하지 못한다.<sup>28)</sup> 이러한

26) *Ibid.*, p.87.

27) *Ibid.*, p.102.

28) John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Collier Books, 1972, p.68.

형태의 목적이 교육과정의 특징이 되게 될 때는 그 결과가 먼 장래를 위한 준비에 강조점을 두게 되며, 교사와 생도가 수행하는 임무를 다같이 노예적이며 기계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교육목적은 설정할 수가 없다. 일반적 목적들은 현존하는 상황을 관찰하고 그들의 제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전망지점에 불가하다. 일반적 목적들의 가치는 상호작용하는 제 방법(수단)을 얼마나 신속하고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가장 잘 검증될 수 있다. 즉, 참된 일반적 목적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를 자극하여 보다 많은 결과를 고려해 놓게 한다. 그래서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신속성있게 수단을 관찰할 수 있게 해 준다.

듀이는 이제 세가지의 일반적 목적을 고찰하는데, 그것은 자연(nature)에 따른 발달과 사회적 능률(social efficiency)에 따른 발달, 그리고 교양(culture) 또는 개인의 정신적 충실화에 따른 발달이다.<sup>29)</sup>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이 세가지 목적이 협의적으로나 불완전한 의미로 해석될 때는 상호간 충돌이 있게 된다. 그러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들 상호간의 관계성이 분명해지게 된다.

자발적 발달(spontaneous development)을 유일한 목적으로 강조하는 자연적 발달의 개념은 교육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초래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생래의 능력을 훈련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억압적인 것이 된다. 의도적인 양육 방법으로 어린이의 본연적 능력에 큰 변화에 가하려는 것은 그의 자연성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활동이란 양육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발달되는 본래적 활동(native activities)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이들 사이의 충돌은 해소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능률을 생산이나 산출 곧 외적산물의 관점에서 측정할 때는 귀족사회에 알맞는 표준이 도입되어진다. 이때는 상류사회는 삶의 보다 나은 일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반면, 대중은 오직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공노동을 할 뿐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민주주의에 대치된다. 그러나 사회적 능률이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겐 그 독특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 올바르게 본다고 하면, 그리고 공동활동에 자유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참여하는 능력의 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본다고 하면 사회적 능률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양이나 인격의 발전이라는 개념이 마음의 내적세련(internal refine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적으로 간주되게 될 때는 사회계급에 따른 개인적 세련이나 품위를 강조하는 배타적 태도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교양을 사물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그 범위와 정확성에 있어서 부단히 확대해가는 능력으로 인식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게 될 때는 이들 제 목적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해지게 된다. 이 세가지 일반적 목적을 모두 수행할 때에 그는 자신의 자연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공동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인격의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9)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pp.111~123.

## IX. 경험과 사고

### 1. 경험의 본질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두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즉 경험은 우리가 소위 '해보는 일'(trying) 또는 실험(experiment)이라고 부르는 능동적 요소(active element)와 '당하는 일'(undergoing)을 의미하는 수동적요소(passive element)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겪거나 당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행동(action)과 반응(reaction)이 있다. 이 두가지 요소의 연결 여부가 경험의 가치를 측정한다. 경험은 변화를 포함하지만 그 활동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의 반동파동(return wave)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활동은 무의미하다. '해보는 일'이 그 행동의 결과의 '당하는 일'로 계속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어린이가 단지 불속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경험이 되지 못한다. 이 행동이 그 결과로 받는 고통과 연결될 때 비로소 경험이 된다. 이 때로부터 손가락을 불속에 집어 넣는다는 것은 화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화상이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인지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무조각이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물리적 변화에 불과하다.<sup>30)</sup>

이와같은 경험개념은 교육에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경험으로 부터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사물에 대하여 하는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 사이의 상호관계, 즉 인과관계를 짓는 일이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도(trying)가 된다.<sup>31)</sup> 즉 세계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계에 대한 실험(experiment)이 된다. 그리고 겪는다는 것(undergoing)은 교육(instruction), 즉 사물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일이된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빈번하게 무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어떤 경험을 '겪는 일'이 없이 단지 지식을 수동적으로 획득하는 방관자로서 간주되고 있다.

이들의 정신(마음)은 지력의 직접적인 에너지에 의하여 가르쳐지는 지식을 흡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체적 활동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와같은 잘못된 이원론은 학교에 있어서 많은 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육체는 정신적 활동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물질적 요소로 간주된다. 학생에게는 몸이 있고 불행하게도 학교에 올 때 마음과 함께 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신체적 활동은 억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집중해야 할 학습으로부터 학생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보았다. 학교에 있어서의 소위 훈련(discipline) 문제의 주된 원인은 흔히 교사가 교재로부터 마음을 빼앗아 가는 신체활동을 억제해야

30) *Ibid.*, pp.139~140.

31) *Ibid.*, p.140.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감에 있지 않는가? 침묵과 엄격한 자세, 기계와 같은 동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적 활동이 의미의 인지로부터 격리되는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교사와 학생에게 다같이 발생하는 정신상 긴장과 피로이다. 성과있는 행동의 출구가 없는 아동의 몸은 의미없는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하면 무의미한 냉담으로 빠져들게 된다. 아동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신체적 능력을 의의있게, 그리고 우아하게 발전시키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체적 활동을 억압하는 소비적 훈련에 강요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정도의 신체적 활동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과 육체의 이러한 이원론적 개념은 감각기관들은 지식을 외계로부터 마음속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송관(conductor)으로 생각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 그래서 인체의 감각기관과 근육이 유의한 경험에 있어 유기적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기계적 형태로 훈련된다.

예를 들면, 감각-운동 독서 기법에 있어서 아동들은 단어의 의미를 도외시하고 단어의 형태를 분별하는데 그들의 눈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기계적 습관이 조성되었을 경우 글을 지성적으로 즉, 이해와 표현을 하면서 읽기가 어렵게 된다. 쓰기, 그리기, 노래부르기, 셈하기 등의 학습에도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어느 방법을 물론하고 감각과 근육이 마음의 외적인 입구와 출구로서만 사용된다면 기계적인 것이 된다.<sup>32)</sup>

## 2. 사고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마음과 육체의 분리는 '관계' 또는 '관련'을 희생시켜 '사물'(things)을 중요시하게 된다. 지각과 관념은 판단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사물들의 관계나 관련과 동떨어져서 사물을 지각하고 사물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이다. 모든 지각과 모든 관념은 사물의 용도, 관계,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마차는 그 모든 부분들의 목록을 만들므로써만 지각되는 것이 아니다. 마차에 대한 관념을 형성케 하는 것은 이들 제부분들이 관계지워지는 방법이며, 이 관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 이상이다. 그 관계는 마차를 끄는 말과 그것이 운반하는 짐과 같은 것들과 관계되어 있다.

관념의 기호인 언어를 흔히 관념 그 자체로 생각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대개 정신적 활동이 신체적 활동과 분리되고, 그가 종사하고 있는 일과 그 일로 말미암아 겪는 것들과 연결시키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의미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일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서, 생생한 경험과 판단의 사용조건 위에서 우리의 관찰과 관념을 형성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찰과 관념이 얼마나 더 예민하고 광범위할 것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

32) *Ibid.*, p.142.

"1온스의 경험은 1톤의 이론보다 낫다."<sup>33)</sup> 가장 최소의 경험이라 할 지라도 어떤 정도의 이론이난 지적내용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경험과 유리된 이론은 사고를 불필요하게 만들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언어상의 공식일 뿐이다.<sup>34)</sup> 빈약한 교육으로 인하여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미없는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해결은 사실상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해결인 것이다.

## 3. 경험에 있어서의 성찰

사고나 성찰(reflection)은 우리가 행하는 바와 그 결과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일이다.<sup>35)</sup> 모든 의미없는 경험은 다소간 어떤 정도의 성찰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착오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적절한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다.

그리고는 그 적절한 방법을 추후 사용할 방법으로 채택한다. 이 방법은 최소한의 성찰을 포함한다. 즉 우리는 어떤 모양의 행동과 어떤 결과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는 되지마는 양자가 어떻게, 그리고 왜 관련을 맺게 되는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사고나 성찰을 계속하게 될때 우리는 원인과 결과, 즉 활동과 결과를 함께 결합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보다 주의깊게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통찰을 더욱 깊이 있게 함으로서 우리는 예전을 일층 더 완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과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바와의 세밀한 관계를 발견할 때, 즉 반성적인(성찰적인) 경험을 함으로서 우리는 사고에 종사하게 된다. 사고는 우리의 활동과 그 결과의 특수한 관계를 발견하여 양자가 계속적으로 연결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사고는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의 지적요소를 명백히 하는 일이다.<sup>36)</sup>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면, 영아가 자기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목에 턱받이를 돌려주는 것을 보면 그는 곧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는 무엇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현재 진행중에 있는 어떤 것은 다음에 올 어떤 것의 기호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는 아주 단순한 모양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의 사태를 다른 어떤 사태의 증거로 삼고 있으며, 그리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인지하는 까닭이다. 지성적이며 경험이 많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판단행위는 이 단순한 추리행위가 확대되고 세련된 것에 불과하다. 즉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관찰한 뒤에, 관찰한 것들 가운데서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 요소를 보다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고과정이라도 그 출발점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어떤 것, 즉 현재 그대로는

33) *Ibid.*, p.144.

34) John Dewey, *School and society*, p.124.

35)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p.144.

36) *Ibid.*, p.146.

불완전하거나 미완성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이다. 그것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진행중에 있는 일이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결과될 것인가 하는데 있다.<sup>37)</sup> 다시말하면, 사고는 현재에 일어난 일(occurrence)과 비록 지금으로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은 장차 나타날 어떤 것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은 아직 진행중에 있는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확실하거나 미확정적 상태에 있다.

따라서, 사고는 탐구나 조사의 과정이며, 중요한 것은 사물에 대한 이러한 탐구나 관찰이다. “획득하는 것은 항상 부차적인 것이요, 탐구활동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sup>38)</sup>

#### 4. 교육에 있어서의 사고

탐구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결과의 예상안을 발전시킨다. 다시 말해서, 임시적, 잠정적인 해결이나 가설을 형성한다. 이 가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존상황과 그 가설의 의미를 주의깊게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을 추리(reasoning)라고 한다. 다음에 이른 또는 관념, 즉 제시된 해결방안이 실제 행동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가설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지 못할 때, 이는 수정되어야 하고 다른 시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고는 이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즉 문제의식, 사태관찰, 적절한 결론의 발전, 그리고 실험적 시험등이다. 비록 모든 사고는 지식으로 결과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획득된 지식의 가치는 사고에 그 지식이 소용되는 곳에 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과업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과 예견을 통하여 미래를 적절히 대처하고 다루어 가는 것이다.<sup>39)</sup>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두가지 아주 중요한 함의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독창적인 연구를 과학자들의 독점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사고는 연구(research)이며 모든 연구는 비록 그가 탐구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독창적인 것이다. 다양한 자료와 근원으로부터 스스로 발견해 내고자 노력하는 아동의 지식탐구과정은 비록 시간적으로 더디다고 할지라도 교사가 아동에게 다량의 정보를 주입식으로 떠먹여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고는 교육적 경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의 요소는 사고의 요소와 동일하다는 점인데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sup>40)</sup>

- (1) 학생은 자신이 본래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계속적인 활동을 내포하는 진정한 경험을

37) Ibid.,

38) Ibid., p.148.

39) Jonh Dewey, *How we think*, Lexington, Massachusetts: D.C.Heath and Co., 1960, p.107.

40)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p.163.

경험해야 한다.

- (2) 진정한 문제는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장면으로부터 발전되어야 한다.
- (3) 학생 자신이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정보(information)를 가지고 관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4) 학생에게 떠오르는 다양한 해결책을 각각 순서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 (5) 학생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안을 응용을 통하여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의 생각이 의미있는 바를 더욱 분명히 하고 그 생각의 타당성을 확립해 볼 수 있어야 한다.

## X. 교수법의 성격

### 1. 실감 또는 감상

대부분의 우리의 경험은 간접적인 것으로서, 사물을 대표하는 기호에 의존한다. 모든 언어와 기호는 사물과 우리 사이에 개재하며 따라서, ‘간접’(mediate)경험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러한 중개물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경험은 크게 제한되어진다. 원시상태로부터 복잡한 문명상태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발전은 직접적인 경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것에 보다 풍부한 의미를 불리고 표상할 수 있는 사물과 관련을 짓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경험의 의의를 확대화하고 심화하는 중개물의 발명 덕택으로 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sup>41)</sup>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호가 진실로 실물을 대표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현재 존재하지 않는 원격한 사건을 현재 경험의 한 부분이 되도록 자극하지 못하고 언어라는 대표 중개물이 그 자체 목적이 되고 말 위험이 있다. 형식적 교육은 특히 이 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많다. 결과로 단순한 현학(bookishness)으로 전락되고 만다. 원격한, 격리된, 그리고 유약한 대표적 경험이, 긴요하고 따뜻하며 친밀성있는 직접경험을 대신한다.<sup>42)</sup> 이것은 어떤 자연광경에 대한 설명을 읽는 효과와 실제로 그 광경을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광경의 그림을 봄으로서 얻는 효과를 대조해 봄으로서 쉽게 예증될 수 있다. 학교는 기술이나 대표적 형태가 직접적인 감상영역을 완전히 대신하게 하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아동들은 학교의 제정된 학과에 의하여 건조된 대표적 경험(간접경험)이라는 상부구조를 지탱하기 위하여 직접경험의 광범위한 기초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감상이나 경험은 질적으로 상징적 교재와 결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는 항상 개인적 참여가 일어나는 참된 상황을 제공해 줌으로서 이 위에 기호라는 매개를 통하여 전달되는 사실과 관념이 구축될 수

41) Ibid., p.232.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 원리는 모든 수준의 학교교육에 적용된다.<sup>42)</sup> 예컨대, 놀이나 여타의 활동적인 작업들은 초등교육의 수준에 적합한 반면, 실험활동은 중등 또는 대학교육수준에 본질적인 것이다.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의 학과를 시작할 때 그들은 그 학과에 대한 '느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직접 어떤 범위안의 사실과 문제에 스스로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먼저 감상(appreciation)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수준의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초등교육의 수준이라 할지라도 활동의 근본적 목적은 학생을 즐겁게 한다든지, 최소한도의 고통으로서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또는 기술을 취득한다든지 - 이러한 결과는 부산물로 생겨날 것이긴 하지만 -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범위를 풍부하게 하고 지적 진보를 자극하는데 있다.

감상의 역할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우리가 참된 가치표준은 개인이 실제로 믿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 어떤 표준(예컨대 도덕상의 황금률)의 기본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는 언제나 직접 연소자에게 이를 가르치려한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친 표준이 단지 언어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공언된 어떤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친절을 실천하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있게 여기고 자기를 좋게 생각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절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의식하는 경험을 몇번이고 거듭하여 자신의 성향(disposition)의 일부가 되게 했을 때 그는 친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진정으로 작용하는 표준은 개인 자신이 스스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특별하게 감상한 표준들이다.

## 2. 상상

듀이에 의하면, 상상(imagination)은 사람의 행동을 기계적인 것 이상으로 만드는 즉, 감상적 실감(appreciative realization)으로 발전시키는 매개물이다. 이것이 무시되거나 또는 상상을 '어떤 장면 전체를 따뜻하고 친근하게 바라보는 어떤 것으로'<sup>43)</sup> 생각하지 않는 한 단지 외적이며 고정적인 가시적 결과만을 강조하게 된다. 이때 성취는 사람보다도 잘 고안된 효율적인 기계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을 의미하게 된다. 기계적인 교수방법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하여는 인간의 많은 활동의 근육 운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상이 직접적인 신체적 반응의 범위밖에 있는 사물의 실감중개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기호가 직접적인 의미를 얻게 되고 개별적인 협소한 활동과 통합하여 이를 확대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상의 힘을 통해서이다.

42) Dewey, *How we think*, pp.236~238.

43)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p.233.

44) *Ibid.*, p.236.

## 3. 학과의 가치

학과들 사이에는 가치의 서열(hierarchy)이 있을 수 없다. 학과는 결코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배열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학과를 막론하고 그 학과가 경험에 있어서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고 삶의 풍요함을 대표해 준다고 한다면 그 학과는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으며 그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무릇 교육은 풍부하고 내재적으로 의미깊은 생을 사는 삶 그 자체인 만큼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삶의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모든 학과와 활동은 수단이 아니라 삶의 구성분자이다. 모든 학과는 그 자체로서 감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학과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기준은 경험의 폭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sup>45)</sup> 학교는 교재와 방법을 단조로움을 피하면서 경험의 통일성이나 단일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교육과정을 감상적 학과, 즉 내재적 가치에 관련된 학과와 방편적 학과, 즉 자기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 또는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학과를 구분해서는 안된다. 어떤 학과를 막론하고 그 학과의 타당한 가치기준을 형성하는 것은 그것이 경험의 직접적인 의의, 즉 직접적 감상에 얼마나 공헌하는가 하는 심미적 질(aesthetic quality)에 달려있다.

각 학과에 독립된 가치를 배정하고, 교육과정 전체를 분리된 가치를 대표하는 학과의 집합체로 생각하는 경향은 본래 사회집단과 계급의 고립현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임무는 이러한 고립화와 단편화를 깨뜨려서 인간의 다양한 흥미가 상호를 강화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다.

## XI. 교육철학

듀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과 교육의 관계를 논의한다. 그는 철학은 '교육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education)이라고 결론을 내린다.<sup>46)</sup> 그가 이러한 정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철학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을 통해서이다. 그는 철학이 언제나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고대철학과의 대부분은 생활방식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학설이 주장하는 원리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에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야만 했었다.

철학이 무엇인가? 듀이에 의하면, 철학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대해서 만드는 요구에 대한 사고이다. 사실에 입각한 지식은 과학이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배열되고 해결된 사물을

45) *Ibid.*, p.248.

46) *Ibid.*, p.328.

대표해 보여준다. 사고는 불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요, 철학은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우리가 시도하여야 할 어떤 일을 과제로 갖고 있다. 철학은 가능한 것을 취급하며,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난점을 규정하고 해결방법을 시사한다.<sup>47)</sup>

개방적 마음(open-minded)을 소유하고 새로운 시각에 예민하며 사물의 관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위 철학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교육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 정적 성향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철학이란 “교육의 일반이론”으로 정의될 수 있다.<sup>48)</sup> 만일 철학이 어떤 의미를 가질려고 하면 철학에 의한 과거 경험의 검토와 가치의 체계는 반드시 실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교육이 가치있는 교육이 되려고 하면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반드시 생활의 개념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는데 이 생활의 개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철학의 임무이다. “교육은 철학이론을 구체화하고 검증해내는 실험실이다.”<sup>49)</sup>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은 일단의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유럽의 최초의 전문적 직업교육자의 단체였다. 이들의 철학적 탐구의 대부분은 먼저 교육의 문제로서 제기된 것이다. 즉,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은 무엇인가? 무지에서 지혜로의 이행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에서 교육의 이론으로서 제기된 철학의 중요 흐름이 있게 되었으며, 그 흐름을 철학과 교육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 준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교육철학’(philosophy of educ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성사상을 근본적으로 그 기원과 목적을 달리하는 실제에 외부로부터 적용하려는 학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교육철학을 이야기할 때 현대의 사회 생활에서 봉착하는 여러가지 난문제에 관하여 올바른 지적, 도덕적 태도 형성문제를 명백히 계통적으로 서술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sup>50)</sup> 따라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철학의 정의는 곧 이것이 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면에 관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과 교육의 개조, 그리고 사회이상과 방법의 개조간에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현재 교육개조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또한 전통적 철학체계에 대한 재고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민주주의의 신장에 따르는 사회 생활에 엄청난 변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동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전통적인 사상과 이상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47) *Ibid.*, p.326.

48) *Ibid.*, p.328.

49) *Ibid.*, p.329.

50) *Ibid.*, p.331.

## Ⅷ. 결 론

수년동안 듀이는 1916년에 처음으로 출판된 민주주의와 교육(Democracy and Education)을 자신의 철학이 가장 잘 정교화되어 있는 책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서 개진된 많은 사상과 원리들의 기초는 이 보다 앞선 그의 연구인 학교와 사회(School and Society)에서 먼저 제시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교육에는 그의 사상이 거의 20년 동안의 연구와 실험, 경험을 통하여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놀랍게 평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교육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듀이 자신이 철학과 교육간에 만들고 있는 연관관계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가 민주주의와 교육 및 그의 다른 저서들에게 개진하고 있는 관점들은 그의 초기 철학적 개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며, 그의 철학의 정교함은 또한 자신의 교육적 경험과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철학은 …교육의 일반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한 그의 말을 다시한번 음미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듀이에게 있어서 교육은 철학이 인간적 관점으로 놓여질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는 수단이다. 관념의 의미는 그것이 인도한 실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확신하는 실용주의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듀이는 철학은 교육실체에 대한 합의점과 결과를 발전시킴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교육에 대한 듀이의 개념은 아주 광범하다. 듀이에게 있어서 교육은 형식적인 학교교육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만 제한되지 아니한다. 그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교육은 개인에게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경험을 포함한다. 교육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성인사회가 그들의 신념과 제도를 연소자들에게 전달하고 그럼으로서 사회를 존속시켜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기능이다. 경험은 하나의 과정이며, 차별, 취사선택, 의미와 질을 포함하는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간주된다. 교육은 성장이며, 모든 가치있는 경험은 또 다른 경험으로 인도해 간다. 성장은 생활이고 생활은 또한 성장이기 때문에 교육은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듀이는 강조한다. 교육적 과정은 계속적인 재구성, 개조 그리고 변형의 과정이다.

보다 협의적인 의미에서 교육은 미성숙자의 행동과 정서적, 지적성향(성벽)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의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노력이다. 듀이에게 있어서 형식교육은 하나의 도덕적 기업인데, 도덕적이라는 것은 교육이 다른 사람과 자연의 사물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인 태도의 형성과 관계한다는 점에서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외부로부터의 통제 곧 훈련(discipline)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이다. 보다 많은 자유와 보다 큰 책임의 전제를 허용함으로써 내부로부터의 질서가 고양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도덕적, 사회적 목적이 향상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효과성은 그것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사회성, 효능이라는 심미적 감상, 반성적 사고, 과학적 흥미, 사회적 의식(social mindedness)을 증진시키는 종류의 경험을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질 수 있다.

문명사회의 유산총체는 너무나 거대하고 직접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이 대리적이며 상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명사회의 유지존속에는 형식적이며 계획적인 학교교육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서 특수한 환경으로서 학교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교통(communication)을 조장하기 위하여 성인들은 그들의 가치와 실제에 대하여 보다 더 잘 인식해야 하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를 개선하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와 실제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사회가 스스로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상호적인 과정(two-way process)이다.

듀이는 모든 사회가운데서 민주주의 사회가 교육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형태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의 협동적인 생활방식이다.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의 성장이 민주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적 목적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성장은 최대한의 경험의 공유와 자유로운 교통을 요구하며, 민주주의는 타인의 이익과 감정을 윤리적 관심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결 더 분명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듀이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한 사회의 문화를 기계적으로 주입시키거나(passing on) 기존의 제도에 습관적으로 적용시키는 과정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오히려 교육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진보와 발전의 원리 위에서 진술되어지는 어떤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질적으로 최고의 물질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개인차를 존중해야 하며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하고, 공동이익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개인의 독특성을 제한시키면서 건전한 다양성을 조장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이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가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서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교육이어야만 한다고 듀이는 보았다.

## 참 고 문 헌

- 오천석, 민주교육을 지향하여, 서울 : 을유문화사, 1960.  
 임한영, 교육사상의 비교연구, 서울 : 배영사, 1976.  
 Dewey, John, *Democracy and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Dewey, John,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 Collier Books, 1972.  
 Dewey, John, *How we think*, Lexington, Massachusetts : D.C.Heath and Company, 1960.  
 Dewey, John, *Philosophy and civilization*, Gloucester, Mass. : Peter Smith, 1968.  
 Dewey, John, *Philosophy of education*, Ames, Iowa : Littlefield, Adams & Co., 1958.  
 Dewey, John,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Boston : Beacon Press, 1957.  
 Dewey, John, *School and socie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Sidorsky, David, *John Dewey : the essential writings*, New York : Harper & Row, 1977.  
 Worton, Stanley N., *Review notes study guide to the major works of John Dewey*, New York : Monarch press, 1964.